

‘금빛 발차기’ 박태준, 태권도 종주국 자존심 지켰다

8년만 금메달... 남자 선수는 16년만 높이뛰기 우상혁 공동 3위로 결승행 탁구 남자 단체전 8강서 중국에 패 세단뛰기 김장우 예선 26위로 고배

한국 태권도 에이스 박태준(경희대)이 2024 파리 올림픽 태권도 남자 58kg급 금빛 발차기를 성공하며 한국 남자 태권도에 16년 만의 올림픽 금메달을 안겼다. 한국 대표팀은 박태준의 금메달로 역대 단일 올림픽 최다 금메달 타이 기록까지 단 1개 만 남겨뒀다.

박태준은 8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프랑스 파리 그랑 팔레에서 열린 이번 대회 태권도 남자 -58kg 결승에서 가심 마고메도프(아제르바이잔)에 기권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박태준은 앞서 16강에서 요한드리 그라나노(베네수엘라)를 2-0, 8강에서 시리앙 라베트(프랑스)를 2-1, 준결승에서 무함마드 할릴 젤두비(튀니지)를 2-0로 연파하며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 박태준은 1라운드 시작 6초 만에 몸통 공격에 성공하며 2-0으로 앞섰다. 하지만 53초에 마고메도프가 왼쪽 정강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재개와 함께 상대 감점으로 3-0이 됐다.

박태준은 1분 14초와 1분 20초에 연달아 몸통 공격을 성공하며 7-0까지 격차를 벌였고, 1분 49초와 1분 57초에 마고메도프가 추가 감점을 받으며 9-0으로 첫 라운드를 가져왔다.



한국 태권도 국가대표팀 박태준이 8일 오전 프랑스 파리 그랑 팔레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태권도 남자 -58kg 결승에서 가심 마고메도프를 상대로 머리에 회전 공격을 성공시키고 있다. AP/뉴시스

박태준은 2라운드에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마고메도프가 11초 만에 감점을 받으며 1-0으로 앞선 뒤 16초에는 나란히 감점을 받으며 2-1이 됐다. 이어 34초에 회전 공격으로 머리를 때리며 7-1로 달아났고, 41초에 몸통 공격을 성공하며 9-1이 됐다.

마고메도프가 42초와 45초에 다시 감점을 받아 11-1로 격차가 더 커졌다. 이어 박태준이 49초에 몸통 공격을 성공하며 13-1로 벌여졌고, 마고메도프가 끝내기 권하면서 경기가 끝났다.

이로써 박태준은 2020 도쿄 올림픽 노골드의 굴욕을 완벽히 털어내고 8년 만에 태권도 금메달을 따내며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켰다. 또 남자 선수로는 2008 베이징 올림픽 손태진과 차동민 이후 16년 만에 시상대 가장 위에 섰다. 박태준은 -58kg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도 남는다. 종전 최고 성적은 2012 런던 올림픽에서 이대훈의 은메달이었다.

박태준이 금메달을 보태면서 한국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열두 차례 금빛 소식을 알렸다. 한국은 앞으로 금 1개를 추가할 경우 역대 최다 금메달 타이 기록, 금 2

개를 추가할 경우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육상의 우상혁(용인시청)은 높이뛰기 결승 진출에 성공하며 메달 사냥에 청신호를 켰다. 우상혁은 지난 7일 오후 프랑스 파리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육상 남자 높이뛰기 예선에서 2m27로 공동 3위에 올라 상위 12명에 주어지는 결승 티켓을 따냈다.

우상혁은 2m15와 2m20, 2m24를 모두 단번에 성공하며 쾌조의 컨디션을 보였다. 이어 2m27을 1차 시기에서 엉덩이가 걸려 실패했으나 2차 시기에서 깔끔하게 성공했다.

이로써 우상혁은 한국 육상 트랙 및 필드에서 최초로 2회 연속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우상혁은 2020 도쿄 올림픽 예선에서 2m28을 뛰어넘어 전체 9위로 결승에 진출한 뒤 2m35로 4위를 기록한 바 있다.

탁구에서는 조대성(삼성생명)과 장우진(세아), 임종훈(한국거래소)이 만리장성의 벽을 넘지 못했다. 조대성과 장우진, 임종훈은 지난 7일 오후 프랑스 파리 아레나 파리 슈드에서 열린 중국과 탁구 남자 단체전 8강에서 0-3으로 완패했다.

육상의 김장우(국군체육부대)는 예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김장우는 8일 오전 프랑스 파리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육상 남자 세단뛰기 예선에서 16m31을 기록하며 32명 중 26위에 머물러 상위 12명에게 주어지는 결승 티켓을 획득하지 못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광고판 없는 올림픽 경기장 진정한 스포츠 정신 엿보여”



올림픽대회가 열리는 경기장과 월드컵 대회가 열리는 경기장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정답은 광고판의 차이이다.

이번 파리올림픽의 참관단으로 활동하며 2주째 다양한 종목의 경기를 다니는 도중, 탁구경기장에 갔는데 경기장에 광고가 하나도 없고 온통 파란 배경에 오륜기와 함께 'PARIS 2024' 라고만 적혀있었다.

우리가 스포츠경기를 현장에서 직접 관람하거나, 중계방송을 볼 때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광고판인데 올림픽 경기장에는 광고판이 없었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 게임과 2년 전 개최된 카타르월드컵에선 광고판이 설치되어 중계방송에 메인 스폰서 광고 노출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난다.

세계 최고의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에서도 삼성을 비롯한 세계적인 기업들이 경쟁을 통해 15개사만 가능한 최고의 후원 등급인 TOP(The Olympic Partner)사로 선정돼 수천억원에서 조에 가까운 금액을 후원한다. 그런데 이들 후원 기업의 광고 노출이 경기장에서 이뤄지지 않

고 있는 게 의아했다. 이유는 IOC의 클린 베뉴(Clean venue) 정책 때문이었다. IOC는 올림픽 현장 제50조 및 마케팅 플랜협약에 따라 경기장 안에 광고판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신 파트너들은 경기장 주변에 부스를 설치해 이벤트를 열거나 중계방송 전·중·후에 광고를 구매해 마케팅을 진행한다고 한다.

IOC는 왜 올림픽 현장에 명시할 정도로 경기장 내 광고까지 제한을 했을까. 정답은 아니지만 선수들이 경기에만 집중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된다.

물론 경기장에 광고판을 설치하는 것이 선수들의 경기력과 직결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광고판 설치로 자연스럽게 선수가 후원사와 함께 노출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상황들이 선수들의 경기력에 어느 정도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에 경기장 내 광고 제한을 하는 게 아닐까 싶다. 이런 점에서 천문학적인 후원금 보다 선수들의 땀방울로 만들어진 올림픽 정신을 더 중요시 하는 IOC의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이번 올림픽에서 엿볼 수 있었다.

향후 전남도체육대회와 전남도생활체육대축전 등에서 클린베뉴 정책을 실현시킬 수는 없지만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최식 간소화 등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고 고민해봐야겠다.

‘우승 청부사’ 라우어 “별명에 걸맞은 활약 펼치겠다”

지난 6일 KIA와 계약 체결 2022년 메이저 11승 투수



KIA타이거즈 새 외국인 투수 에릭 라우어(Eric Lauer·29)가 팬들에게 받은 ‘우승 청부사’라는 별명에 걸맞은 활약으로 팀의 열두 번째 우승에 보탬이 될 것을 다짐했다. 라우어는 지난 7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입단 인터뷰를 갖고 “한국에 오게 돼 굉장히 기쁘다. 다른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한국에 오기 전부터 분위기에 대해 들었고,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 팬들과도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 6시즌, 70경기를 소화하며 36승 37패 2홀드, 평균자책점 4.30의 성적을 남긴 라우어는 지난 6일 계약금 5만달러와 연봉 30만달러 등 총액 35만달러에 KIA와 계약을 맺고 입단했다.

그는 2022년 밀워키 브루어스 소속으로 메이저리그 두 자릿수 승리를 챙겼던 수준급 자원이지만 어깨와 팔꿈치 부상이 이어지며 주춤했다. 올해는 마이너리그 트리플A 슈저랜드 스페이스 카우보이스(휴스턴 애스트로스 산하)에서 재기를 노렸지만 한국 무대로 옮겨게 됐다.

라우어는 “작년에는 부상으로 불운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올해는 몸상태가 굉장히 좋다. 이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상으로 불안했고 의문점도



KIA타이거즈 에릭 라우어가 지난 7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입단 인터뷰를 가진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많았지만 내가 견재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나를 증명해보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나를 가르쳤던 라이언 피어밴드를 통해 KBO 리그 소식이나 정보를 들었고, 조쉬 린드블럼에게도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한국에 더 쉽게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에릭 페디를 비롯한 여러 선수들이 한국이나 일본 무대에서 좋은 투구를 보이고 메이저 리그로 돌아갔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라우어의 1차적인 목표는 팀 우승이다. 메이저리그 복귀라는 큰 꿈에 앞서서 먼저 KIA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다. 이후 재계약 또는 메이저리그 복귀 등 여러 선택지를 두고 고민할 전망이다. 그는 “현재 1위 팀에 와서 우승을 노린

다는 것이 굉장히 흥분된다. 1위 팀에 새로 합류한 것에 대한 부담감은 있을 수 있지만 적당한 압박감이 있어야 오히려 잘 던질 수 있다”며 “올해 우승을 차지한다면 미국으로 돌아갈지 한국에 남을지 고민될 것 같다. 한국에서 잘 던진다면 그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KIA 팬들은 라우어에게 우승 청부사라는 별명을 선물했다. 열두 번째 우승 도전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라는 의미다. 이범호 감독 역시 라우어가 선발 로테이션에 연착륙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우어는 “별명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 별명 자체가 팀의 우승에 큰 도움을 준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별명에 어울리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KBO 리그 적응에도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별명이다”고 자신했다. **글·사진·한규빈 기자**